중증 알콜중독 아들에 의한 신체적, 재정적 학대, 언어·정서적 학대

I. 사례 개요

1. 개요

- 본 사례는 중증의 알코올리즘 아들이 어머니(c't) 와 딸에게 수 십 년간 신체적, 언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c't는 손녀딸과 아들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대행위자의 수 십 년간의 지속된 폭행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임.
- 사례 접수 후 관할 면사무소 사회복지전담요원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밑반찬 서비스 및 동네 교회를 통해 학대행위자와의 긴급 분리시 교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거처 마련을 하였음.
- 학대행위자에게는 알콜 치료 후 지역사회 기관 연계를 통해 일자리 사업이 지원되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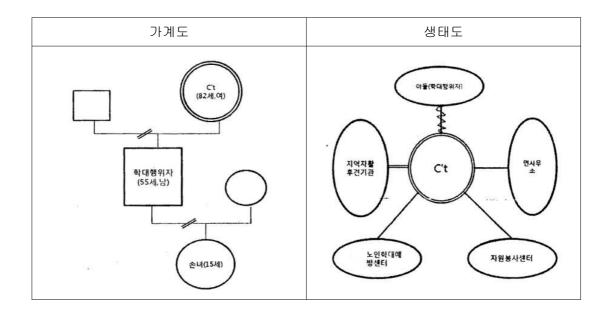
2. 접수상황

- □ 피해자 : 김○○(여, 82세) 무학, 농업
- □ 행위자 : 신○○(남, 55세) 무직
- □ 학대상황
- 신체적 학대 : 알코올리즘의 아들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음주상태에서 어머니 딸을 수시로 구타하며 어르신과 딸에게 잦은 신체적 학대행위가 이루어짐.
- 재정적 학대 : 생계비 지원이 되고 있는 통장을 어르신에게 내놓으라고 하여 어르신 도장을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언어·정서적 학대 : 어머니(c't)에게 "이렇게 살게 할 것이었으면 나를 왜 낳았느냐?"라며 언어 정서적 폭력을 일삼음.

Ⅱ. 사정

1. 가족력

가. 가계도 및 생태도



나. 가족 구성원 기본사항 및 특성

- □ 피해자 c't(여, 82세) 무학, 농업
 - 어르신은 현재 학대행위자(아들), 손녀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 1종으로서 생계비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생계비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돈을 사용한 사실이 거의 없으며 학대행위자가 술을 먹고 사용하는 생활비의 형태라고 함.
 - 지속적인 아들의 폭력행위로 인한 정서적 불안상태이며 온 몸에 멍든 상처가 있었지만 처음 어르신과의 1차 현장조사를 통한 상담시에는 아들의 학대행위가 아닌, 넘어져 다친 상처라고 표현함.
 - 아들과 독립되어 생활하기를 원하지만 손녀딸과 함께 거주를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으며 손녀딸이 행여나 잘못 될까봐 아들에 대한 처벌도 내리지 못하는 상태임.
- □ c't의 아들(남, 55세) 무직, 사망

자주 술을 마시는 상태로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높으며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거의 없음. 또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으며 술을 마시면 가까운 면사무소에 가서 자주 난동을 부리고 생계비 지원금을 더 올려달라고 행동을 함. 또한, 학대행위자는 술을 마실 경우에는 동네 사람에게도 담배 불을 빌려달라며 밤새 잠을 설치게 하며, 정도가 갈수록 술을 마시는 행동과 신체적 학대행위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임.

- □ c't의 손녀딸(여, 14세) 학생
- 현재 c't의 손녀딸은 중학교 1학년이며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여 학원도 무료로 다니고 있다고 함.
- 손녀딸은 아버지가 신체적 폭력 등이 일어날 경우 경찰서에 자주 신고를 하며, c't에게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자고 하는 상태이며 어르신의 정서적 지지를 지원하고 있음.

2. 문제 사정

가. 안전 확인

- 거주지의 특성상 외부와 격리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c't의 집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격리가 필요할 경우 손녀딸과 같이 옮길 수 있도록 함.
- 아들의 잦은 음주로 인해 신체적. 언어 정서적, 재정적 학대에 시달리고 있음.

나. 건강상 문제

- c't의 몸 전체에 외상이 있는 상태이며, 특히 얼굴에 멍든 상처가 심한 상태임.
- 가해 학대행위자인 큰 아들은 알코올 치료를 위한 단주 임 및 알콜 치료센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경제적 능력

- c't의 가족은 기초생활수급권 1종 대상으로서 정부보조금이 3인 가족이 현재 40여 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음.
- 일정수입은 정부 보조금 및 c't가 도토리 등을 주워서 팔아 생계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
- 학대행위자의 알코올 치료 등이 끝이 나면 그 후에는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자활후견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봄.

3. 욕구(need)

피해노인(c't)	학대행위자	기타주변인
• 학대행위자와 분리가 필요할 경우 시설 연계 (아들과 분리된 생활) • 단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 연계	• 의료적 지원을 요구 • 재정적 지원	 c't가 위급할 경우 지구대 도움 요청. 같은 동네 거주하는 교회의 자원 요청.

III. 개입

1. 개입 목표 및 계획

- 가. c't의 안전을 확보
 - 학대행위자의 분리 및 알코올 치료 센터에 도움 요청
 -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적 지지
- 나. 경제적 문제 완화를 위한 서비스 지원
 - 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 지역 자활후견기관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알코올 센터에 도움 요청
 - 지역 자원봉사센터 밑반찬 가사 서비스 지원 및 말벗 도우미 요청
- 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가족들의 대처 강화
 - 알코올리즘에 대한 이해
 - 학대행위자의 알코올 치료센터 이용 협조요청 및 정보제공

2. 개입과정

가. c't의 상담: 현장조사/상담

- 처음 현장조사를 통해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는데 주거환경 중 눈에 띄이는 것은 마당 입구에 소주병이 많이 놓여 있었으며 다른 집들과 달리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방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으며 위생이 불량한 상태임.
- 어르신은 아들에게 맞은 것이 아니며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며 얼굴에 멍이 심하게 난 흔적이 보임.
- c't의 기초생활수급권 대상자로서 정부 보조금 40여 만원을 받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어르신의 도장을 도용하여 생계비를 본인의 술값 등으로 쓰고 있다고 함.
- c't 학대행위자와 분리되어 살고 싶지만 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을 경우 손녀딸이 비행청소년으로 자랄까봐 겁이 난다고 함.
- 어르신은 손녀딸이 착하고 공부도 잘하며 학대행위자가 술을 먹을 때 지구대에 연락도 하여 손녀딸이 든든하다고 함.

나. c't의 아들(학대행위자)

- 술을 마실 경우에는 난폭한 행동으로 인해 c't와 딸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하지만 평소에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동네 사람들과 말도 잘 못한다고 함. 자신의 부모와 딸에게 술을 마신고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다가 시간이 흐른 후 인정하였음. 건강도 안좋고 생활이 힘드니 도와달라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음.
-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상황은 아니지만 술을 마셨을 경우 난폭한 행동이 동반되므로 알코올치료 및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자활후견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함.

다.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사

어르신의 취약한 가정생활 및 거주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기관에 의뢰를 요청하였다. 말벗 도우미 밑반찬을 요청한 상황이며 지속적인 도움은 어려울 수 있으나 빠른 시간 내에 어르신에게 필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함.

라. 지역사회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사

학대행위자의 알코올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알코올치료센터의 연계와 알코졸 치료가 끝이 나게 되면 일자리 사업을 마련을 위해 자활후견기관에서 보일러 시공기술을 배울 예정임.

3. 현재상황

학대행위자의 설득과 꾸준한 정보제공을 통해, 알코올치료를 위해 알코올치료센터에서의 치료 후 현재는 지역사회 자활후견기관에 보일러 시공 기술을 배워 자활후견기관의 도움 을 받고 있으며 어르신의 가정에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월 1회 정도의 밑반찬 서비스 및 말벗 서비스가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

IV. 평가

본 사례는 알코올리즘의 아들이 가족구성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행사함으로 인해 전반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였다. c't가 이웃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학대행위자의 행동을 받아들여서 알코올 치료 및 지역사회 자활후견기관에 연계 및 도움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c't의 소극적인 행동으로 인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손녀딸과 학대행위자의 적극적인 태도 등으로 2차 학대의 재발의 위험소지가 소거되었다. 이후 수개월에 걸친 학대행위자의 알코올치료 등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지역사회 자활후견기관에서 보일러 시공 기술을 배우고 술을 마시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더불어 지역사회 협력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하겠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족분위기와 삶을 기대해 보겠다.